

광주은행, 93조 혁신도시 금융 잡기 나선다

17개 공기업 이용률 1%도 안돼...광주은행 고객 유치 총력 맞춤형 다양한 상품 출시...한전KDN과 금융지원 협약 체결

7000여 명이 근무하는 나주 혁신도시 17개 기관의 금융 수요를 잡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역은행이 지역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올 한 해 한전 예산만 72조원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기관의 총 예산은 92조6000억원에 달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기업·기관 17개 가운데 10개는 광주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다.

금리 공개입찰을 통해 광주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 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9개다. 기존 전속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주 거래은행을 광주은행으로 두고 있는 곳은 17개 기관 가운데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예산이 3662억원이었던 콘텐츠진흥원과 우정사업정보센터(예산 2841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935억원) 등 아예 거래가 없었던 기관은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파연구

원 등 6곳이다. 기관당 직원 수가 100명에서 많게는 17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 기관은 1%도 되지 않는 비중으로 지역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기관 주거래 은행은 농협이 6곳(한전·농어촌공사·농촌경제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수산식품유통공사)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3곳(인터넷진흥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리 2곳(한전KPS·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체국 2곳(전파연구원·우정사업정보센터) ▲외환(전력거래소) ▲ 신한(콘텐츠진흥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을 신규 거래처로 발굴하기 위해 고객별 맞춤형 상품, 지역별 특화 공익상품 등을 내놓으며 '맞춤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도시 에너지 공기업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광주은행과 한전KDN(주)는 지난 1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 직원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에 본사를 둔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 등록업체 직원



박성철(왼쪽 네번째) 한전KDN 사장과 송중욱(왼쪽 세번째) 광주은행장은 지난 16일 지역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은행 제공>

은 개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협약감면 금리 1.90%포인트를 우대하고, 광주은행에서 최대 1.50%포인트까지 추가 우대해 최대 3.40%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광주은행에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신설하며 지역 맞춤형 금융책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내년부터 90억원 규모 한전

퇴직연금을 거래할 예정이며, 한전KDN의 2020년 직원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함께 상생발전을 이루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 '발농업 활성화 농업인 소통포럼'

발작물 농업경쟁력 확보 사례 발표·적용 건의

농업인 고령화·판로 부족 지적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 17일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전문가 소통포럼'을 열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는 지자체와 지역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석한 지역 농업인들은 고령화로 인한 외부인건비 부담과 판로 부족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공사가 강원 강릉 안반데기지구와 전북 김제 농공 재배 주산지 등에서 발작물 생산기반정비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한 성공사례들을 다른 지역에 도 폭넓게 적용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기계화율과 소규모 분산화로 인한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가공·유통이 한 번에 연계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배성태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경제작물 재배현황'과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 '소규모 발농수 공급 체계

개발 및 적용' ▲김영순 아람답게그린베 대표 '유통·가공 활로개척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배성태 과장은 경제작물 재배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계화를 위해서는 발기반 정비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승진 교수는 발농수 공급방안으로 빗물 저류조와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이용 사례를 설명하며 발·비닐하우스 등 대상 지역 적용안을 제시했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한 사업모형을 구체화해 지방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 농업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별로 지역맞춤형 현장 포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98%...역대 최고치 달성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한전KDN이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9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17일 한전KDN은 최근 열린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KDN의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은 98%이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은 지난해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는 상생전시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공공구매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중소기업 기술보조를 위한 교육과 분야별 중소기업 간담회, 구매상담회 등도 진행됐다.

앞으로 한전KDN은 에너지ICT 장비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직원 복지지원사업 ▲협력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ICT직무교육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개선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백년가게 홍보용 플랫폼 구축 등 지

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23회를 맞은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는 기술인증기업 성공사례 및 공

공기관 우수사례 발표, 정부포상 및 우수제품 전시전 등이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식품 수출 우리가 앞장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가운데)는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41명과 함께 수료식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aT는 내년 10여 개국에 청년 120여 명을 파견해 실무인재를 키울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가운데)는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41명과 함께 수료식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aT는 내

년 10여 개국에 청년 120여 명을 파견해 실무인재를 키울 방침이다. <aT 제공>

사학연금,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재난 안전 체계 개선 등 실행부문 높은 평가 받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10월28일부터 5일간 실시한 전국단위의 재난대비훈련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

육청 및 소속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서면평가를 실시, 사학연금공단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사학연금은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재난 안전 체계를 개선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 시나리오를 설계·진행하는 등 유망 분야에서의 실행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중훈 사학연금 이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aT, 농식품수출 '닥터씨앗' 참여업체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역량진단 사업인 '닥터씨앗' (Dr. C-aT) 참여업체를 17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닥터씨앗'은 전문가가 신청업체를 직접 방문에 수출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주는 사업이다.

역량조사를 받은 수출업체는 수출준비 인 '씨앗·발아·성장·성숙·열매'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돼 업체별로 필요한 역량에 따라 적합한 수출지원사업 안내를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해외시장개척맵'을 통해 직접 자사의 강점과 약점, 타겟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닥터씨앗' 역량진단 사업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참고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